천원궁 승리 입궁 세계연합예배 참부모님 말씀

천일국 13년 천력 1월 5일(2025.02.02.) 오전 9시 '천원궁 승리 입궁 세계연합예배'가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2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됐습니다. 이날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천무원에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들 식구 여러분

이 벅찬 천일국 1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날을 주심을 창조주 하늘부모님께 깊이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타락 이후 전쟁과 갈등으로 하루도 평화로운 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도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선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 민족·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4천년 만에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으나, 마리아와 이스라엘민족은 책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더더구나 동방박사까지 별을 보고 찾아온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일 기록이 없습니다.

30년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노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고,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오마' 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2천년 기독교 섭리가 출발이 됩니다.

초기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로마제국의 인정을 받아 이태리반도를 중심으로 유럽대륙,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대서양문명권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왜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 했는데 그 뜻을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핑계로 전도에 나섰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대서양문명권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늘의 창조 원칙을 놓고 볼 때, 독생자가 탄생 되었으면 그 상대가 탄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민족을 통해서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탕감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탕감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타락한 인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선민을 택해 세워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독생녀의 탄생은 기독교 환경권에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개신교에 신령 역사가 일어날 때 계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민족은 일제하에 있었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남과 북으로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독생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창조 원칙에 의해서 성장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의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참전하여 선의 피를 흘렸을까요? 하늘이 함께 하셔서 독생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남과 더불어 하늘을 부모로 알고 자랐습니다. 내 책임은 반드시 내

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책임을, 완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1960년에 참부모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세월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 나와서 결국은 기원절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위주로 나왔습니다.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조주께서도 창조주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독생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도 섭리를 알아주는 자 없는 가운데 홀로 걸어 나와 7개국 복귀, 7개 종단 복귀, 대륙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가정, 천보가정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해야 됩니다. 책임. 독생녀 참어머니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크게 높게 넓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가정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이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에는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이 Holy Mother Han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찾는 데 있어서 1세 · 2세 · 3세 할 것 없이 퓨어워터들이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Holy Mother Han과 하나 된 여러분 모두가 천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